



김진명(장신대)

1. 들어가는 말

「개역개정역」성경의 출애굽기 4장 24-26절에는 자신의 소명을 확인한 모세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의 귀환 길에 올랐을 때에 여호와께서 애굽 귀환 여정 중에 있던 ‘모세’를 죽이려 한 일이 벌어졌고,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번역된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 본문을 「표준새번역」성경²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번역한 「성경」(이

1 이 논문은 2019년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

2 「표준새번역」성경에 관한 연구는 박철우, 「표준새번역」성경 번역의 과거와 미래, 「구약논단」 69집 (2018년 9월), 53-81을 참고할 수 있다. 박철우는 「표준새번역」성경이 내용동등성의 원칙과 역동적 번역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번역은 「개역」과 「공동번역」의 중간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57).

하, 「천주교역」성경)에서는 24절의 주어를 ‘주님’으로 번역하였고, 목적어는 ‘모세’로 번역하였다. 「공동번역」성서는 “모세가 길을 떠나... 야훼께서 찾아오시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24절을 번역하였으며, 주어를 ‘야훼’로 번역하고, 목적어는 ‘그’로 번역했으나, 앞 문장에 모세를 언급하면서 연속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목적어를 ‘모세’로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번역들은 히브리어 본문의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를 모세라는 ‘특정한 인물’로 전제하고, 본문 전체를 ‘모세의 이야기’로 보아왔던 기존의 전통을 그대로 반영한 번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³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애굽 귀환 도중에 있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세의 이야기’로 보았던 전통은 많은 주석서들과 본문 연구 논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칼뱅(J. Calvin)은 ‘그’를 처음부터 모세로 판단하고, 모세가 아내와 장인의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았으며, 야훼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⁴ 이 경우에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모세가 아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마틴 노트(M. Noth)도 이 본문에 대하여 야훼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야기(배경설화)와 모세의 아들과 관련된 할례 이야기(전승설화)가 결합된 전승사적인 첨가물로 분석함으로써 4장 24절의 ‘그’를 모세로 보고 본문을 주석했다. 노트는 25절의 본문에 갑자기 등장한 ‘아들의 할례’는 초점이 모세에게 놓여진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후대의 첨가이며, 원래는 모세에게 행한 성인의 할

3 그러나 TANAK (... the Lord encountered him and sought to kill him... And when He let him alone...)와 English Standard Version (... the Lord met him and sought to put him to death... So he let him alone...)에서는 3인칭 남성 단수 주격 인칭대명사는 주님으로 번역했지만 3인칭 남성 단수 목적격 인칭대명사를 him으로 다른 전제 없는 번역을 하였다.

4 존 칼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I」(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규약성경주석 3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100-101. 원제는 John Calvin, *Exodus, Leviticus, Numbers and Deuteronomy* (Calvin's Commentaries, Vol. 3; Grand Rapids: Baker Books, 1970).

레 이야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⁵ 랭스톤(Scott M. Langston)은 이와 관련된 '사탄'의 이름이 마스테마 왕자(prince Mastema)로 언급되었다는 설명(Book of Jubilee 48:1-4)과 모세를 삼키려했던 두 천사는 분노와 화가 인격화된 아프(Af)와 헤마(Hemah)였다고 했던 전승(B. Nedarim 31b-32a)에 대하여 소개하기도 했다.⁶

라이스(Pamela Tamarkin Reis)는 출애굽기 4장 24-26절을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이야기와 유비시켜 해석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을 파악하였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너무나 잘 적응한 나머지,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인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아들 게르숨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소명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노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모세에게 피납편이라고 말한 것은 모세가 스스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되찾아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집트 노예인 이스라엘인으로 만들게 된 것에 대한 비난과 모욕의 말과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⁷

이 외에도 엠브리(B. Embry)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한 이유에 대하여 2장 11-15절에서 모세가 이집트인을 죽였던 일과 연관된 문제로 해석하였으며,⁸ 페티트(David Pettit)는 창세기 22장과 32장과 민수기 22장의 정경적인 문맥 안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야기로서 4장 24-26절 본문을

5 마틴 노트, 「출애굽기」(한국신학연구소 역), (국제성서주석 2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59-60. 원제는 Martin Noth, *Das Zweite Buch Mose: Exod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6 Scott M. Langston, *Exodus*, Blackwell Bible Commentaries (Malden; Oxford; Calton: Blackwell Publishing, 2006), 22

7 Pamela Tamarkin Reis, "The bridegroom of blood : a new reading", *Judaism; a Journal of Jewish Life & Thought* 40, 3 (1991), 324-333 참조.

8 B. Embry, "The Endangerment of Moses: Towards a New Reading of Exodus 4:24-26", *Vetus Testamentum* 60 (2010), 177-196 (181). 엠브리(B. Embry)는 2장 15절과 4장 19절에서 "찾다"라는 뜻의 같은 동사가 사용된 점을 단서로 두 본문이 연결된 점을 확인하였다.

해석하였고, 하나님의 주권과 모세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로 파악하였다.⁹ 로빈슨(Bernard P. Robinson)은 소명에 주저한 모세가 직면했던 죽음의 위협을, 야훼의 유능한 도구가 되기 전에 거쳐야만 했던, 야곱의 한밤중 씨름과 같은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했다.¹⁰

앞에서 살펴본 출애굽기 4장 24-26절에 대한 대부분의 주석적 연구들은 ‘모세 이야기’라는 획일적인 전제와 틀을 가지고 본문 해석을 시도해왔던 연구들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프롭(William C. Propp)은 이와 다른 해석을 시도하였고, 야훼께서 죽이려고 한 인물을 모세의 아들 게르숨으로 제시하였다.¹¹ 그렇다면 프롭은 무엇을 근거로 기존의 해석 전통과는 다른 해석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맛소라 본문’(이하: MT)의 출애굽기 4장 24-26절에서 본문의 주어와 목적어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호성은 본문 해석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걸림돌과 같은 요소일까? 아니면 본문 해석의 새로운 가능성과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요소로 해석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24절의 히브리어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 목적어 ‘그’를 모세로 본다면, 이 본문은 모세와 직접 연결된 그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로 주석을 진행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모세의 아들로 본다면, 이 본문은 우선 모세의 아들과 그의 할례에 초점을 맞춘 본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¹²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그’를 십보라로 해석할 경우에는 본문에 대한 해석의 방향은 더 많이

9 David Pettit, "When the Lord Seek to Kil Moses: Reading Exodus 4.24-26 in its Literary Context", *JSOT* Vol. 40.2 (2015), 163-177.

10 로빈슨 (Bernard P. Robinson)은 게르숨의 ‘할례의 피’로 모세의 생명을 구한 일은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이스리엘이 구원받을 사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Bernard P. Robinson, "Zipporah to the Rescue: A Contextual Study of Exodus IV 24-6", *Vetus Testamentum* XXXVI, 4 (1996), 447-461 (460).

11 William H. C. Propp, *Exodus 1-18* (The Anchor Bible, vol. 2; New York: Doubleday, 1999), 238-239. 프롭은 출애굽기 4장 24-26절에서 언급된 할례의 피와 장자 게르숨을 유월절 의식과 관련된 파라오의 장자와 피 등의 주제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야훼께서 죽이려고 한 인물은 모세가 아닌 아들 게르숨이었다고 주장하였다.

12 William T. Miller, *The Book of Exodus* (New York, Mahwah: Paulist Press, 2009), 34-35.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번역과 주석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비평장치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대 본문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24절에 언급된 주어에 ‘야훼’ 대신에 ‘칠십인경’(이하: LXX)의 사본들에는 ‘주님의 천사’ 또는 ‘천사’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26절의 ‘그가 그를 놓아주었다’라는 문장에서도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마리아오경’(이하: SP)에서는 3인칭 여성 단수 인칭대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되어 그 목적어가 ‘십보라’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편적 정보만으로는 출애굽기 4장 24-26절 본문의 주석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애굽기 4장 24-26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파악을 위하여, 우선 MT와 LXX와 SP의 평행본문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각각의 본문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무엇인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MT의 인칭대명사 해석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LXX와 SP의 평행 본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고, 서로 다른 고대 본문들의 차이점을 근거로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본문 주석의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데 있다.

각각의 고대 본문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특징들을 비교하는 작업은 출애굽기 4장 24-26절을 이해하기 위한 시야를 확대하고, 이 본문들을 각각의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 및 정교회와 사마리아 공동체의 본문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문 해석의 시도는, 앞으로 동일하게 ‘율법서’를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각의 종교 공동체들 간의 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출애굽기 4장 24-26절 본문의 위치와 번역의 문제점

1) 본문의 문학적 위치 분석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소명을 위한 여정에서 발생한 생명의 위협이라는 ‘사건 유형’은 민수기 22장의 발람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³ 발람의 경우에는 당나귀가 중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4장의 모세 이야기에서는 십보라가 그 역할을 했으며, 발람이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였듯이, 모세도 유사한 의미의 경험을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¹⁴ 그런데 출애굽기 4장의 이 본문은 그 앞의 3장에서 시작된 모세의 소명 사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더랩(John I. Duhram)은 출애굽기 1-13장을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1:1-13:16)로 단락을 구분하고, 그 가운데 3-7장을 ‘구원자의 소명과 그의 위임과 그의 순종’이라는 제목을 붙여 단락 나누기를 하였다.¹⁵

3-4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구원을 위한 모세의 소명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¹⁶, 4장 24-26절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부르심과 모세의 소명 거절과 소극적인 응답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시작된 모세의 순종에 연결된 특이한 사건을 보여준다. 이 본문은 좀 더 큰 범위의 단락으로는 4장 18-31절의 ‘모세가 이집트로 귀환하는 이야기’에 속해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출발하는 내용과 야훼의 이집트 귀환 명령(4:18-19), 모세와 아내와 아들들의 이집트 귀환(4:20), 모세가 이집트에서 행할 이적을 야훼께서 명령하심(4:20-23), ‘죽음의 위협’과 ‘할례’와 ‘피-납편’ 이야기

13 픽스레이 (George V. Pixley)는 이 사건을 아굽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공격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였다 (창 32:22-32, cf. "demonic side" (29)) George V. Pixley, *On Exodus: A Liberation Perspective*, tr. from Spanish by R. R. Barr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7), 29.

14 이에 관한 비교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B. Embry, 윗글 (2010), 177-196 (181); Philip Graham Ryken, *Exodus* (Wheaton: Crossway Books, 2005), 133 참조.

15 J. I. Durham,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 Waco: Word Books, 1987), 2.

16 에리히 쟁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114-115. 원제는 Erich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W. Kohlhammer GmbH, 2016).

(24-26), 야훼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마중할 것을 명하신 사건과 모세와의 만남 (4:27-28),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만난 사건(4:29-31)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MT의 출애굽기 4장 24-26절에 나타난 인칭대명사들은 20절의 모세와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 본문이 연결된 전후의 다른 본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24-26절에 기록된 '모세의 애굽 귀환 길에 동행한 가족의 이야기'가 매우 모호한 문법적 요소들을 가진 본문의 형태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적인 의문점은 18장 1-4절에서 장인이 다시 데려온 가족과의 재회에 이를 때까지, 4장의 사건 이후에 어디에서도 모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본문상의 모호성과 의문점에 대한 대답을 고대 본문들에 대한 분석적 연구에서 찾아보 고자 한다.

2) 본문의 번역과 관련된 문제

더랩은 4장 24-26절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평가하였으며, 그 중요한 이유는 이 단락에 나타난 주어와 목적어의 모호함과 여기에 사용된 인칭대명사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⁷ 이제 이 본문에 대한 MT와 LXX와 SP의 고대 본문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이 인칭대명사들과 본문 해석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 MT(Masoretic Text,)

24. 그리고 그가 그 길에 있는 숙영지에 있었다. 그런데 야훼께서 그를 만나셨고, 그가 그를 죽이고자(וַיִּזְמֹן) 시도하셨다.

25. 그러자 십보라가(צִפּוֹרָה) 차들을 취하였고, 그의 아들의 포피를 그가 잘라서(בָּנָה אֶת עֲרֻלָּהּ), 그의 발에 가져다 대었다(וַיִּתֵּן לְרַגְלָיו).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당신

17 J. I. Durham, *윗글* (1987), 56-57.

은 나에게(לִּי אֵתָהּ) 진실로 피-남편(הַחֵן-דָּמִים)입니다.

26. 그러자 그가 그를 놓아주셨다. 그때 그가 말했다 (3fs). 할레로 인하여(לְמוֹלַת) 피-남편입니다.

MT에는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24절의 동사 הָיָה(‘하야/-이다)와 결합된 주어로서 첫 번째 3인칭 남성 단수 ‘그’는 누구일까? 모세일 수도 있지만,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일 가능성도 있고(2:22), 4장 20절에 언급된 ‘아들들’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¹⁸ 그러나 숙영지에 있던 ‘그’를 만나서 죽이려고 시도한 존재는 הָיָה(‘야훼/주님)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야훼’도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의 주어로 표현되어 있다.

25절에서는 십보라가 주어로 등장하며, 첫 번째 동사 문장에서는 3인칭 여성 단수가 주어로 사용되었다.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그 포피를 ‘그’의 발에 가져다 대었다. 이 본문은 성인식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된 ‘발’은 성기를 표현하는 완곡어법으로 볼 수 없으며, 문자 그대로 번역할 수 있다.¹⁹ 26절의 첫 문장에서 동사 רָפָה(‘라파/놓아주다)의 주어로 사용된 3인칭 남성 단수 명사는 다시 ‘야훼’를 뜻한다. 야훼께서 ‘그’를 놓아주셨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אָמַר(‘아마르/말하다)동사의 3인칭 여성 단수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을 한 사람이 ‘십보라’임을 알려주고 있다.

לְמוֹלַת(‘라몰로트/할레로 인하여)’에서 מוֹלַת(‘몰로트/할례)’는 여성 복수어미 형태이며, 이것은 유일회적으로 사용된 경우이다(hapax legomenon).²⁰ 그렇다면 맛소라 본문에서는 ‘피-남편’이라는 마지막 낱말을 통하여 이 본문 안에

18 윗글, 56-57.

19 T. Longman III & D. E. Gerland (ed.), *Genesis~Leviticu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2008), 384.

20 윗글, 385.

서 놓임을 받은 대상이 십보라의 남편 모세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5. 당신은 나에게 (לְךָ אֲנִי) 진실로 피-남편 (אִישׁ־בְּרִית)입니다.

26. 할례로 인하여 (בְּלִמְעוּל) 피-남편입니다.

3인칭 대명사의 모호함에 따른 여러 해석의 가능성과 함께 MT는 25-26절에서 ‘피-남편’을 부가시킨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진 특징을 가진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MT는 유대교의 경전인 동시에 기독교의 구약성경 본문으로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독서하는 이들은 본문을 ‘모세’에게 비중을 둔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본문을 읽어나갈 수 있다.

(2) LXX (Septuagint)

24. 그런데 그 길에 있는 숙영지에서 주님의 천사가(ἄγγελος κυρίου) 그를 만났다.

그리고 죽이기 위하여(ἀποκτείνει) 그가 그를 찾았다.

25. 그러자 십보라가 차들을 취하였고, 그의 아들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였다(περιέτεμεν).

그리고 그가 그의 발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나의 아들의 할례의 피가 멈추었다(ἔστη τὸ αἷμα τῆς περιτομῆς τοῦ παιδίου μου).

26. 그러자 그가 그에게서 떠났다. 왜냐하면(διότι) 나의 아들의 할례의 피가 멈추었다라고(ἔστη τὸ αἷμα τῆς περιτομῆς τοῦ παιδίου μου)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MT의 24절에서 주어와 목적어는 동일하게 3인칭 남성 단수 ‘그’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LXX의 24절에서 3인칭 남성 단수 주어인 ‘그’는 ‘주님의 천사’로 번역되어 있으며, 다른 3인칭 대명사는 목적어로만 표현되어 있어서 3인칭 대명사 ‘그’를 구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번역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데 LXX에서는 ‘십보라의 아들’을 25절과 26절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LXX에서는 이 단락 전체를 모세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의 문제로 묘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XX에는 “과남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 대신 ‘나의 아들의 할례의 피가 멈추었다’라는 구문을 통하여, MT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할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십보라의 ‘아들’과 그에게 행한 ‘할례’에 더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MT와 LXX의 25-26절에서 드러난 확연한 차이점들은 단순한 번역의 차이보다는 LXX의 원본이 MT와 다른 히브리어 본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특징일 수 있다.²¹

따라서, LXX은 전체적인 내용을 모세의 아들에게 집중하도록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장 24-26절은 십보라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를 문제 삼아 십보라의 아들을 죽이려 하였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보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26절은 그 결과로 ‘주님의 천사가 아들’을 놓아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XX은 주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 유대 공동체의 정경이었고, 초대교회의 성경이었으며²², 동방정교회에서 전례에서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하다.²³ 정교회에 속한 이들은 본문을 읽을 때에 십보라의 아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야기로 본문을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
- 21 마뉴엘 진바키안, “칠십인역과 마소라 사본 사이에 나타난 의미론적 차이들”, “좀 쉽게 말해주세요: 본문비평과 성서번역” (왕대일 역음), (민영진박사 회갑 기념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35-166 (136, 142 참조) 원제는 Manuel M. Jmbachian, “Some Seman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asoretic Text and the Septuagint”, Tai-il Wang (Ed.) *Tell Me the Word Easy to Understand-Textual Criticism and Bible Translation* (In Honor of Young-Jin Min 1;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00), 135-166.
- 22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본문비평적 검토: 신명기(MT와 LXX, 개역과 표준새번역)”, “좀 쉽게 말해주세요: 본문비평과 성서번역” (왕대일 역음), (민영진박사 회갑 기념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67-244 (168).
- 23 “칠십인역,” <https://ko.wikipedia.org/wiki/%EC%B9%A0%EC%8B%AD%EC%9D%B8%EC%97%AD> (2019년 10월 14일 접속); 칠십인경의 안디옥 본문과 카이게-개정본 사이의 본문상 특징에 대한 연구는 김정훈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의 칠십인경 본문 형태에 관한 연구-열왕기상 8장 1-53절과 역대하 5장 2절-6장 42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0집 (2016년 6월), 10-37을 참고할 수 있다.

(3) SP (Jewish Samaritan Pentateuch)²⁴

24. 그리고 그가 그 길에 있는 숙영지에 있었다. 그런데 쉘마(יהוה, Shemhmaa)께서 그를 만나셨다.²⁵ 그리고 그를 기절시키기 위하여 (המיתו) 찾았다.

25. 그러자 십보라가 (צבורה) 차들을 취하였고, 그 (3fs)가 그의 덮인 마음에 할레를 행하였다 (והכרת את ערלת בנה), 그리고 그 (3fs)가 그(3ms)의 발에 자신을 데려갔다 (והגע לגליו). 그리고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진실로 피-남편입니다.

26. 그러자 그가 그(3fs)를 보내주었다 (וירף מוננה). 그때 그(3fs)가 말했다. 할레 받을 피-남편 (התן רגמים למולות a bridegroom of blood, to be circumcised)²⁶

SP의 24절은 MT의 자음 본문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일한 자음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읽기 전통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SP의 24절 자음본문에서 המיתו는 MT의 읽기전통에서는 hamito로 읽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체다카(B. Tsedaka)는 SP의 읽기전통에서는 Amitoo로 읽어서 ‘기절시키려고 하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²⁷ 그러므로 SP는 ‘쉘마’(Shemhaa)께서 그를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시키거나 놀라게 하려고 찾았다고 기술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24절의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 목적어는 26절의 여성 단수 인칭대명사와 구분이 되므로 여기서 남성 단수 목적어는 ‘모세’로 볼 수 있고,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SP의 본문 읽기 전통에 따르면 야훼께서 모세를 만나 위협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을 십보라가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게 된 이야기로 본문

24 Avraham Sadaqa (ed. and tr.), *Jewish Version, Samaritan Version of the Pentateuch* (Jerusalem: Rubin Mass, 1964)의 사마리아오경의 히브리어 자음 본문과 Benjamim Tsedaka (tr. and ed.) & Sharon Sullivan (co-ed.), *The Israelite Samaritan Version of the Tor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3)의 사마리아오경의 읽기전통을 반영한 영역 자료를 사용함.

25 SP의 읽기전통에서는 יהוה 를 ‘아도나이’ 혹은 ‘야훼’ 대신에 ‘쉘마’(Shemhaa)로 발음하여 읽는다. 윗글, 7, 132 참조.

26 윗글, 133.

27 윗글, 137. "SP version: "Aamitoo" with the meaning of "stunning him"(Ex. 14:24, Deut. 2:15); MT version: "Hamito"= to kill him."

을 읽어가야 한다.

25절의 자음 본문 **בנה ערלת**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MT와 SP의 자음본문은 동일하지만 **בנה**를 MT에서는 3인칭 여성 단수 접미어와 결합하여 ‘그의 아들’을 뜻하는 ‘브나흐’(benah)로 읽지만, 체다카는 SP의 읽기전통에서는 ‘빈나흐’(binnah)로 발음하여, 이 낱말이 3인칭 여성 단수와 결합된 ‘그의 마음’을 뜻하는 말로 기록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읽기전통에 따라서 SP의 **בנה ערלת**(아릴라트 빈나흐, ‘arillat binnah)를 ‘그의 할례받지 못한 마음’ 혹은 ‘그의 덮인 마음’으로 번역하였다.²⁸ 25절의 동사에 결합되어 있는 3인칭 단수 주어는 ‘십보라’를 지칭하며, 본문은 십보라가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다는 묘사를 통해서 그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십보라였다고 말해주고 있다.

26절의 ‘그러자 그가 그를 보내주었다’라는 문장에서는 3인칭 여성 단수 인칭대명사를 목적어로 제시함으로써, 십보라가 ‘그’를 떠나게 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서 ‘보냈다’라는 동사의 3인칭 주어를 만약 ‘야훼’로 본다면, 이 문장은 ‘야훼께서 십보라를 보내주었다’ 혹은 ‘야훼께서 십보라를 놓아 주었다’로 해석할 수 있다. SP는 4장 24-26절에서 발생한 일들의 결과를 십보라에게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맥의 흐름은 이 단락의 본문 전체가 십보라와 관련된 사건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MT에서는 이후에 십보라와 자녀의 행방을 언급하지 않지만, SP는 이때 십보라와 모세가 한시적으로 헤어지게 되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출애굽기 4장 24-26절 본문을 십보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십보라의 이야기로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 개의 본문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의 아들’의 포피에 할례를 행했다는 MT와 LXX의 경우와는 다르게, SP는 십보라가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28 윗글, 136. “arilla (circumcision context=“Foreskin” as it is in Lev. 26:41, Deut. 10:16)-is also connected with blocked lips, blocked from expressing the thoughts of the heart (Ex. 6:12, 30).”

행했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26절에서 농임을 받았거나 떠난 사람을 SP는 십보라로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LXX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 혹은 ‘남편’이라는 말이 언급되지 않았고, 십보라가 아들에게서 할례의 피가 멈추었다고 말하는 내용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가 풀려난 사람이 ‘모세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각각의 본문들은 서로 다른 교집합과 합집합에 해당하는 특징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각각의 초점과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본문의 최종 형태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인칭대명사를 해석할 수 있는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MT의 24절 문장에서 주어는 ‘야훼’가 되고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3인칭 대명사는 ‘모세’로 분석할 수 있다. 26절의 주어와 목적어도 연결 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LXX에서는 주어가 ‘주의 사자’로 바뀌었으며, 그 목적어는 ‘모세’ 일수도 있고, ‘모세의 아들’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은 ‘모세의 아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SP의 경우에 24절의 주어는 ‘야훼’이고 목적어는 ‘모세’ 혹은 ‘십보라’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6절은 목적어가 3인칭 여성 단수 인칭대명사로 명시되어 있으며, SP의 본문은 ‘십보라’에게 주목하는 형태의 이야기로 구성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3. 출애굽기 4장 24-26절 본문 비교 연구와 해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T와 LXX와 SP의 25절에서 공통된 내용은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3인칭 대명사와 연관된 본문 해석에 따라 등장인물도 달라지고 주요 내용이 달라지면서, 각각의 본문들은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MT에서는 그 앞 단락의 문맥을 고려했을 때에 ‘모세’의 소명 이야기와 연속 선상에서 ‘모세’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목적어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LXX의 헬라이어 본문은 목적어의 모호함은 나

타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모세의 아들’이 강조된 형태로 사건을 기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P의 히브리어 본문은 ‘십보라’가 부각된 이야기로 이 사건을 묘사해 주었다. 이처럼 세 개의 본문들은 모세가 이집트로 귀환하는 여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전달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본문은 그 사건의 핵심에 ‘십보라’가 야훼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점과 십보라가 ‘할레’를 행하였다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24 야훼 혹은 주님의 사자가 누군가를 죽이고자 했다.

인칭대명사 목적어: MT-(모세 혹은 아들), LXX-(모세 혹은 아들), SP-(모세 혹은 십보라)

25 십보라가 할레를 행했다.

목적어: MT, LXX 모세의 아들 / SP 십보라의 마음

26 누군가 (야훼, 천사, 모세) 그를 놓아주었다.

인칭대명사 목적어: MT-모세 혹은 아들, LXX-모세 혹은 아들, SP-십보라

인칭대명사 주어 : MT-(야훼), LXX-주님의 천사, SP - 야훼 혹은 모세

SP는 그 할레가 ‘십보라의 마음’에 행했던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두 개의 히브리어 본문 (MT, SP)은 마지막 절론으로 십보라가 모세를 ‘피 남편’으로 부르게 되었다는 설명을 통하여 사건의 시작과 끝이 모세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MT와 LXX의 경우에 그 할레는 ‘모세의 아들’에게 행하여진 것이었지만, 25절과 26절에서 십보라가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불렀다는 반복적인 표현과 본문의 중요한 용어로서 ‘할레’라는 용어는 MT와 SP의 공통 요소로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MT와 LXX과 SP의 ‘할레’에 관한 문제

MT와 LXX는 모세의 아들들에게 구체적으로 시행된 ‘실재 할레’의 문제를 언급했지만, SP는 ‘마음의 할레’라는 관념적이며 비실재적인 십보라의 할레를 말

하고 있다. 고대 근동에서 실행되었던 할례는 세로로 가르는 형태(이집트)와 포피를 모두 잘라내는 형태(서부 셈족)의 두 가지 다른 형식이 있었으며, 특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 되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²⁹

(1) MT의 ‘할례’에 대한 해석

구약에서 할례를 처음으로 언급한 본문은 창세기 17장 9-14절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다고 이 본문은 이야기한다 (11-12).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결혼과 할례가 결합된 근거를 전제로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이후에 비로소 이삭을 얻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이 이야기는 할례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복된 후손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한 일종의 풍요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⁰

출애굽기 4장 24-26절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상실하기는 했지만, 십보라가 ‘할례’로 인하여 모세가 ‘피-남편’이 되었다고 표현한 난해한 구문도 할례와 결혼 사이의 연결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본문은 할례의 행위가 죽음의 위협이 비켜 가도록 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¹ 하지만 차일즈 (Brevald S. Childs)는 MT의 이 난해한 구문이 원래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이 본문의 최종 편집자가 더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문을 기록한 것이며, 따라서 이 본문은 기원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의 중요성’과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모세를 구했다는 ‘십보라의 행동’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

29 Robert G. Hall, "Circumcisio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 Day, 1992), 1025-1031 (1025).

30 윌클, 1026 참조.

31 윌클, 1026.

했다.³²

이러한 해석들을 종합해보면 MT에서 이야기하는 ‘할레’는 ‘결혼’과 관련된 의식의 흔적을 가지고는 있으나, 강조점은 그 ‘의미’나 ‘기원’의 문제보다는 십보라의 ‘행동’에 놓여 있다고 해석하도록 기록한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사용된 3인칭 남성 인칭대명사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본문은 ‘모세’ 혹은 ‘모세의 아들’이 할레를 행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LXX의 ‘할레’에 대한 해석

한편, 더렘은 모세가 할레를 받지 않았거나, 이집트인들의 전통에 따른 부분적 할레(수 5:2-9)만 행했기 때문에 야훼께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상황에서, 십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할레를 행함으로 모세의 생명을 구했다고 보았다.³³ 그러나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우선,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간 부모에 의해 숨겨졌다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놓여진 것이라면(출 2:2), 히브리인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레를 받는 전통을 따라 모세도 할레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파라오의 딸이 갈대 상대를 열고 모세를 발견하자마자 히브리인임을 알아보았다는 출애굽기 2장 6절의 묘사는 파라오의 딸이 갓난아기 모세의 할레 상태를 보고 곧바로 히브리 노예의 자녀로 인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³⁴

32 Breveld S. Childs, *The Book of Exodu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95-101 (100). 차일즈는 벨하우젠(J. Wellhausen)이 출애굽기 4장 24-26절 본문은 할레가 어른들에게 행해지던 의식에서 아이들에게 행해지는 의식으로 변형된 기원의 문제를 말해주는 본문으로 주장한 것(Reste Arabischen Heidentum, Berlin 1897, p.175)과 이 해석을 따르는 그 이후의 전통에 대하여 비판하였다(97).

33 J. I. Durham, *룻* (1987), 58.

34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는 Cornelis Houtman, *Exodus*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283-284에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이집트인들도 할레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슈미트(Schmidt)는 이집트의 경우 약 14세가 될 때까지 남자아이에게 할레를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해 주었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다(284). 한편, 사르나(Nahum M. Sarna)는 ‘그의 발들’을 모세의 아들의 성기에 대한 원곡어법으로 보고, 유월절 피-의식처럼 모세의 아들의 성기에 피를 발라 재앙을 넘어가도록 한 보호 기능으로 할레 의식을 연결시켜 해석하였다. Nahum M. Sarna, *룻* (1991), 24-26.

그렇다면 LXX에서 모세를 ‘피- 남편’이라고 언급하지 않은 점과 ‘아들의 할례’의 피가 멈추었다’라고 말한 구체적인 표현들은 모세의 ‘아들’과 ‘아들의 할례’에 대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있는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연결된 맥락에서 24절과 25절과 26절의 인칭대명사들은 모세의 ‘아들’을 언급한 표현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아들이 할례받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로 출애굽기 4장 24-26절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SP의 ‘할례’에 대한 해석

SP 본문은 출애굽기 4장 24-26절에서 ‘할례’의 중요성 문제에 대하여 MT와 LXX와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SP가 전제하고 있는 사고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모세가 하나님의 증으로 선택받을 수 없다는 것과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그렇다면 이 본문은 ‘아브라함-사라’ 혹은 ‘이삭-리브가’ 혹은 ‘야곱-라헬’의 이야기와 같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해당이 되며, ‘모세-십보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³⁶

우선, SP에서는 모세와 결혼한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으로서 모세의 신앙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고, 내용을 전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체다키는 십보라의 “뒤틀린 마음”(=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같이 할례와 관련된 유사한 표현이 레위기 26장 41절과 신명기 10장 16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출애굽기 6장 12절과 30절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어눌함을 표현하면서 ‘입술’에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³⁷ 또한 체다키는 출애굽기 4장 24절의 SP 본문은 MT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기절시키다 혹은 놀라게 하다’(Aamitoo)라고 표현했으며, 이 사건을 목격한 십보라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뒤틀린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다고 해석하였다.

35 B. Tsedaka & S. Sullivan, 윗글 (2013), 134 참조.

36 윗글, 134.

37 윗글, 136.

십보라의 이러한 결단과 행위는 그가 그전까지 외형적인 가족관계의 틀 속에서는 함께 했지만, 실재로는 단힌 마음으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위급한 순간에 십보라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고, SP의 본문은 이를 십보라가 행했던 '마음의 할례'로 표현하였다.³⁸ 이 일 후에 이어진 내용을 기록한 SP의 4장 26절은 3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를 주어로 사용하고, 3인칭 여성 단수 인칭대명사를 목적어로 사용하여, '그 (모세)'가 '그 (십보라)'를 떠나게 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렇다면 모세는 아내와 아이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돌려보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혼자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본문으로 26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³⁹

이러한 내용은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을 다시 데리고 온 사건에 대한 묘사와 더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SP 본문의 묘사가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본문들과의 논리적인 연결성을 더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본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⁴⁰ 4장 24-26절의 전체 내용은 초자연적인 사건과 경험을 통하여 십보라가 모세를 인정하고, 그 신앙을 받아들인 내용의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⁴¹

2) MT와 SP의 '피-남편' 칭호에 관한 문제

MT는 아들의 할례를 행한 그 결과물을 모세의 발에 가져다 대는 의식을 시행함으로써 할례의 피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남편'이라는 칭호가 등장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SP는 실재적인 할례와 피를 연결하는 대신에 '마음의 할

38 윗글, 137.

39 윗글, 135-137 참조. 이때 깨어난 모세가 십보라의 행동을 미디안의 이교도적인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십보라와 두 아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cf. 이 책에서는 18장의 모세와 십보라가 재회하는 내용을 일종의 화해의 사건으로 해석하였다 (135).

40 윗글, 137-138 참조.

41 Philip Graham Ryken, 윗글 (2005), 132. 이 책에서는 MT의 할례의식에서도 십보라가 언약관계에 동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한다.

레'를 통해 모세를 십보라가 '피-남편'으로 인지하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SP에서 언급한 '피-남편'은 실제적인 할례 의식과 무관한 다른 표현일 가능성이 있다.

더렘은 MT에 대한 주석에서 “당신은 나에게 진실로 피-남편입니다”라는 고대의 문장이 결혼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고, 이 표현이 출애굽기 4장의 편집자에 의하여 '할례'의 의식에 연결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⁴² 메이어(Carol Meyers)는 구약에서 유일한 표현으로서 '피-남편'은 고대 미디안의 개념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화석화된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이 이야기는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세 명의 여성 구원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십보라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파라오의 딸, 미리암, 십보라).⁴³ 도즈만(Thomas B. Dozeman)은 할례를 행한 십보라의 행동은 모세의 첫째 아들 게르솜을 죽음의 위험에서 구한 일이 될 수 있지만, 25절의 '그가 포피로 모세의 발을 건드렸다'라는 문장에서 '발'이라는 표현이 남성의 성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과 결혼을 의미할 수 있는 '피-남편'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십보라의 행위가 모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고 해석하기도 했다.⁴⁴

결론적으로 십보라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디안 여인이었던 그가 적절한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그의 가족을 보호했다고 요약할 수 있으며, 십보라가 행한 '의식'과 '피-남편'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구약의 최종 본문 상에서 더는 명확하지 않지만, 야훼의 공격으로부터 모세를 보호한 사람이 아내 십보라였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⁵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면, SP에서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십보라에

42 J. H. Durham, *룻* (1987), 58-59.

43 Carol Meyers, *Exodu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63-64.

44 Thomas B. Dozeman, *Exodus* (Grand Rapids: 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155.

45 *룻*, 155-156.

게 집중된 이야기로 묘사되어 있고, 십보라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남편 모세의 소명과 그 실행을 위한 이집트로의 귀환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동안 미디안의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십보라는 출애굽기 4장의 사건을 계기로 모세의 소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MT와 LXX과 SP의 개별적 전승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해석의 제안

왕대일은 MT와 LXX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본문상의 차이가 우열의 차이가 될 수 없으며, 두 본문 사이의 차이는 성서 해석을 위한 다채로움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⁴⁶,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다양한 본문 형태는 각각의 최종 본문이 나타나기까지 존재했을 여러 전승과 전승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⁴⁷ 예를 들어, LXX의 예레미야서가 MT의 경우보다 약 1/8이 짧고, LXX의 율기는 MT의 본문보다 약 1/6이 짧다는 사실을 통해 MT와 LXX의 저본이 다르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것처럼⁴⁸,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MT와 LXX와 SP의 본문이 보여주는 확연한 차이는 세 본문의 저본이 각각 달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로도 평가될 수 있다.⁴⁹

그렇지만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세 가지 본문은 전승의 다양성과 함께 공통적인 내용도 보여준다. 그 가운데 하나는 ‘십보라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여

46 왕대일, *읽글* (2000), 169.

47 왕대일, “번역비평의 이론과 실제-프롤레고메나”, 『성경원문연구』 제12호 (2003. 2), 41-67 (43); 김정훈, “마소라 본문 케타브/케레 전통의 본문비평적 성격 고찰”, 『성경원문연구』 제43호 (2018. 10), 184-208 (185-186) 참조.

48 Anicia del Cono, “Why So Many Bible Versions”, 『성경원문연구』 제12호 (2003. 2), 176-203 (178).

49 MT와 LXX와 SP의 각 본문이 서로 다른 시대와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세 본문의 저본이 서로 다를 수 있었다는 가능성의 한 요소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LXX와 관련된 저본의 단일성과 다중성에 대한 논의의 문제는 Karen H. Jobes & Moises Silva,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을 참고 할 수 있다.

기에 사용된 ‘파-남편’은 그 말의 원래 의미를 최종 본문 상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할례’와 결합된 십보라의 응급조치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구원 행동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행동들은 그의 자녀와 관련되는 동시에 그의 남편과 관련된 일이었다.

‘할례’는 근본적으로 창세기에서 히브리인으로 불렸던(창 14:13)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동시에 ‘하나님과 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하는 징표로서 의미를 갖는다(창 17:9-14).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길을 나선 모세와 그의 아내와 자녀는 먼저 ‘하나님과 의 관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서로에게 각인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⁵⁰ 이 경험은 모세와 그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 경험이 되었으며, 할례를 행한 ‘십보라’를 중심에 두고 언급된 ‘남편’과 ‘아들’은 공통의 경험에 참여하게 된 가족 구성원 모두를 말해준다.⁵¹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의 시작과 결말은 ‘야훼’(혹은 ‘주님의 천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MT와 LXX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혼자 이집트로 귀환했는지 혹은 가족과 함께 갔는지에 대한 명확한 묘사가 없지만, SP는 26절에서 모세가 혼자 돌아갔다고 묘사한다. 그러나 모세가 혼자서 이집트로 귀환한 것은 가족관계가 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 4장의 이 이야기는 모세의 소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할례’의 경험을 통하여 모세와 십보라와 자녀가 함께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 사건은 ‘할례’의 전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모세

50 이와 유사한 해석과 사고의 전개를 Ray Shankman, “The Cut that Unites: Word as Covenant in Exodus 4:24-26”, *Cross Currents* 41,2 (1991), 168-178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샤크만은 할례를 일종의 계약 의식으로 파악하고, 이를 전제로 출애굽기 4장 24-26절을 해석하였다 (cf. ‘자르다’라는 동사가 계약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에서도 사용된다). 할례의식에서 포피를 자르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육신적인 관계를 분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연합을 만드는 계약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모세가 가족과 분리되어 이집트로 돌아가지만, 그가 혼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연합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의미하며, 이 연합 관계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해석한다.

51 개인의 소명과 연결된 가족 전체로서 소명의 경험과 관련된 유형의 이야기는 예언서 가운데 호세아의 결혼과 가족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고 (호 1-3장),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자녀들 (7:3, 8:1-4, 18)과 아내 (사 8:3)에 대한 언급들에서도 가족 전체에게 적용되었던 소명 경험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가 지도자로서 더욱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모세의 소명 경험을 강화시키고, 내적으로 보다 공고하게 만든 사건으로서 의미도 갖는다.⁵²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아내의 온전한 동의와 신앙적인 지지도 얻지 못했다면,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소명을 감당하려는 모세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과 해결하기 어려운 내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⁵³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SP는 모세의 아내가 남편의 신앙과 정체성과 소명을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며, LXX은 아들이 할례에 참여했음을 강조하고, MT는 모세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⁵⁴ 그렇다면 각각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관점의 차이들을 성서해석을 위한 다채로움으로 보고⁵⁵, 본문들 사이의 '서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본문의 특징을 인정하고 '병렬'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MT의 출애굽기 4장 24-26절에 나타난 인칭대명사들의 모호성은 본문 해석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소명 사건에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지를 제공하는 디딤돌과 같은 요소로 재평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사건 이후에 모세는 이집트로 혼자 귀환하였고, 후에 가족과 다시 재회하게 되는 장면을 출애굽기 18장 1-5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세가 혼자 이집트로 돌아간 것은 내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확신과 신뢰 가운데 진행된 절차였으며, 모세가 소명을 감당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이 취했던 조치와 변화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52 Bernard P. Robinson, *윗글* (1996), 459-460.

53 S. M. Langston, *윗글* (2006), 74 참조.

54 C. Houtman, *윗글* (1993), 443 참조.

55 왕대일, *윗글* (2000), 169.

5. 나가는 말

출애굽기 4장 24-26절은 3-4장의 '모세의 소명 이야기' 전체 내용 가운데 '모세와 가족의 이집트 귀환 여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MT에서 사용된 모호한 인칭대명사를 사용한 문장들은 본문의 번역과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세 혹은 모세의 아들로 번역되거나 십보라로도 추정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출애굽기 4장 24-26절의 3인칭 인칭대명사 '그'의 모호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호성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본문 해석의 여지와 가능성을 제공하는 요소로도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LXX은 모세의 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SP는 십보라에 각각 초점을 맞추므로써, 본문을 단순히 모세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아들 혹은 십보라가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역할을 하는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MT와 LXX와 SP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을 우열의 분별 기준이 아니라 본문들의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특징들로 평가하고, 이 본문들을 병렬적으로 놓고 본다면, MT에 나타난 인칭대명사들의 모호함은 오히려 LXX과 SP의 강조점들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세 본문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출애굽기 4장 24-26절 본문은 MT 3-4장에서 묘사한 모세의 소명 사건에 모세의 아들(LXX)과 아내 십보라(SP)가 가족 구성원들로서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각각의 본문 전승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내용을 반영할 수 있으며, 각 인물에 대한 다양한 강조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이야기로 새롭게 파악해 볼 수 있었다. MT에서 사용한 3인칭 인칭대명사의 '모호성'은 세 가지 본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전승의 다양성을 비교 연구하는 작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최종본문들을 함께 병렬해 놓고 비교 연구하는 작업은, 각 본문을 개별적으로만 연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호성이나 해석상의 어려움들에 대하여, 다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문 해석을 위한 상

호적인 도움과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 참고문헌

- 「성경전서 개역개정」,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천주교역 성경」, 서울: 한국가톨릭주교회의, 2005.
- Tsedaka, B. (tr. and ed.) & Sullivan, S. (co-ed.), *The Israelite Samaritan Version of the Tora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3.
- Sadaqa, A. (ed.), *Jewish Version, Samaritan Version of the Pentateuch*, Jerusalem: Rubin Mass, 1964.
- 김정훈,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본문비평적 성격 고찰”, 『성경원문 연구』 제43호 (2018. 10), 184-208.
- _____,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의 칠십인경 본문 형태에 관한 연구-열왕기상 8장 1-53절과 역대하 5장 2절-6장 42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0집 (2016년 6월), 10-37.
- 마뉴엘 진바키안, “칠십인역과 마소라 사본 사이에 나타난 의미론적 차이들”, 『좀 쉽게 말해주시오: 본문비평과 성서번역』 (왕대일 엮음), (민영진박사 회갑 기념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35-166 (136, 142 참조).
- 원제 Jinbachian, M. M., “Some Seman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Masoretic Text and the Septuagint,” Tai-il Wang (Ed.) *Tell Me the Word Easy to Understand-Textual Criticism and Bible Translation* (In Honor of Young-Jin Min 1;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2000), 135-166.
- 마틴 노트, 『출애굽기』 국제성서주석 2권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

- 국신학연구소, 1981). 원제 Noth M., *Das Zweite Buch Mose: Exod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3).
- 박철우, “표준새번역 성경 번역의 과거와 미래”, 「구약논단」 69집 (2018년 9월), 53-81.
- 왕대일, “번역비평의 이론과 실제-프로레고메나”, 「성경원문연구」 제12호 (2003.2), 41-67.
- _____, “번역 속의 주석-본문비평적 검토: 신명기(MT와 LXX, 개역과 표준새번역)”, 「좀 쉽게 말해주시오: 본문비평과 성서번역」 (왕대일 엮음), (민영진박사 회갑 기념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67-244.
- 에리히 쟁어, 「구약성경개론」 (이종환 옮김), (외관: 분도출판사, 2012). 원제 Zenger, Erich.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W. Kohlhammer GmbH, 2016).
- 존 칼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I」 (존칼빈성경주석출판위원회 역), (구약성경주석 3권;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2). 원제 Calvin, J., *Exodus, Leviticus, Numbers and Deuteronomy*, (Calvin's Commentaries, Vol. 3; Grand Rapids: Baker Books, 1970).
-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4.
- del Cono, A., “Why So Many Bible Versions”, 「성경원문연구」 제12호 (2003.2), 176-203.
- Dozeman, T. B., *Exodus* (Grand Rapids; Cambridge: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9).
- Durham, J. I., *Exodus*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 Waco: Word Books, 1987).
- Hall, R. G., “Circumcision”,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 Day, 1992, 1025-1031.
- Embry, B., “The Endangerment of Moses: Towards a New Reading of Exo-

- Exodus 4:24-26", *Vetus Testamentum* 60 (2010), 177-196.
- Houtman, C., *Exodus*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 Jobes, K. H., & Silva, M., *Invitation to the Septuagi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0).
- Langston, S. M., *Exodus, Blackwell Bible Commentaries* (Malden; Oxford; Calton: Blackwell Publishing, 2006).
- Longman III, T. & Gerland, D. E. (ed.), *Genesis~Leviticus*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Miller, W. T., *The Book of Exodus* (New York; Mahwah: Paulist Press, 2009).
- Petitt, D., "When the Lord Seek to Kill Moses: Reading Exodus 4, 24-26 in its Literary Context", *JSOT* Vol. 40, 2 (2015), 163-177.
- Pixley, G. V., *On Exodus: A Liberation Perspective*, tr. from Spanish by R. R. Barr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87).
- Propp, H. C. W., *Exodus 1-18* (The Anchor Bible, vol. 2, New York: Doubleday, 1999).
- Robinson, B. P., "Zipporah to the Rescue: A Contextual Study of Exodus IV 24-6", *Vetus testamentum* XXXVI, 4 (1996), 447-461.
- Ryken, P. G., *Exodus* (Wheaton: Crossway Books, 2005).
- Sarna, N. M., *Exodu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New York,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 Shankman, R., "The Cut that Unites: Word as Covenant in Exodus 4:24-26", *Cross Currents* 41, 2 (1991), 168-178.
- Reis, P. T., "The bridegroom of blood: a new reading", *Judaism; a Journal of Jewish Life & Thought* 40, 3 (1991), 324-333.

검색어

피-남편

소명

인칭대명사

모호성

모세

Whose Story is Exodus 4:24–26?

- A Textual Comparative Study of the Masoretic Text (MT),
the Septuagint (LXX), and the Samaritan Pentateuch (SP) -

Jin Myung Kim, Th.D.

Associate Professor, Old Testamen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Exodus 4:24–26 shows ‘Moses and his family’s journey back to Egypt’ in the entire story of Moses’ vocations in chapters 3–4. The ambiguous personal pronouns used in this text can be difficult element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This study focused on the ambiguity of the third-person personal pronoun “he” or “him” in Exodus 4:24–26, which implies the possibility of being translated as Moses or a son of Moses or even as a presumption of Zipporah. This ambiguity is a difficult problem, but at the same time it can be interpreted as an element that provides the possibility for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text.

Because LXX focuses on a son of Moses and SP focuses on Zipporah, they describe the text not simply as a story centered on Moses, but a story in which the son or Zipporah had

www.kci.go.kr

an important meaning or role. Assessing the differences between MT and LXX and SP as characteristics that show the versatility of texts rather than the discriminative criteria of superiority, and looking at these texts in parallel, the ambiguity of the personal pronouns presented in MT can rather function as an element of interpretability that can reflect the emphasis of LXX and SP.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hree texts, Exodus 4:24–26 shows that Moses' son (LXX) and his wife Zipporah (SP) can be closely related as family members in the calling process of Moses described in chapters 3-4 (MT). It is possible to reflect the viewpoints and contents of each text, and to recognize the story with the possibility of highlighting a variety of emphasis for each character. and the parallel work of comparing various final texts can help to understand the ambiguity and difficulty that can occur when studying each text individually.

The parallel work of a comparative study of the different final versions (MT-LXX-SP) will re-illuminate the interpretational ambiguities or difficultie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which occur when each of the different versions is studied individually, thus providing the mutual assistanc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xt and the possibility of new interpretations.

Keywords

bridegroom of blood

vocation

personal pronoun

ambiguity

Moses

- 투고일: 2019년 10월 15일
- 심사일: 2019년 10월 29일
- 게재 확정일: 2019년 10월 29일

www.kci.go.kr